

(flow cytometry)에 의한 DNA ploidy 분석이 가능한 경우인 20명을 대상으로 임상 고찰 결과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으며 설암 환자 예후 측정에 있어서 DNA ploidy의 유의성을 알아 보았다.

1) 병기(stage)와 DNA ploidy의 상관 관계는 제 1기 환자 6명중, 4명(66.7%)이 이배수성(diploidy)이었고, 제 3기 환자 9명중 6명(66.7%)이 비배수성(aneuploidy)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사망한 제 4기 환자 2명은 모두가 비배수성(aneuploidy)이었다.

2) 조직학적 전이가 판명된 8명 환자의 임파선 분석 결과 5명(62.5%)에서 비배수성(aneuploidy)을 보였다.

3) 근접전이(Regional Metastasis) 및 재발이 없었던 12명의 환자 중 8명(66.7%)이 이배수성(diploidy)을 나타내었고, 근접전이 및 재발을 보인 8명의 환자 중 6명(75%)이 비배수성(aneuploidy)을 나타냈다.

4) 총 20명 환자 중 10명의 이배수성(diploidy) 종양환자에서의 S(Synthetic)-phase는 평균 27.6%이었으며 나머지 10명의 Aneuploidy 경우에는 평균 33.5%를 나타내었다.

— 18 —

Pilocarpine과 Atropine 투여가 백서 악하선조직의 방사선손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광현 · 김진영 · 성명훈 · 김창원

두경부 악성종양의 방사선치료시 타액선이 조사야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방사선에 의한 타액선의 분비기능장애로 인하여 구강건조증이 초래되고 연하장애, 미각소실, 치아부식증 등이 병발하게 되고, 많은 환자들의 경우 영구적으로 타액선의 분비기능이 저하되어 평생동안 심한 불편을 겪게 된다.

타액선의 방사선조사시 분비과립이 많이 존재하는 장액성세포가 주로 손상을 받게 되므로, 저자들은 타액선내의 분비과립의 양을 변화시킴에 의해 방사선에 의한 타액선의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백서 타액선의 분비에 영향을 주는 pilocarpine 및 atropine을 투여한 후 방사선조사를 시행하여, 타액선조직에서 방사선에 의해 받는 손상의 정도를 검색하였다.

방사선조사는 18Gy를 단일조사하고 백서 악하선내의 장액성 세포의 변화를 광학현미경 및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Pilocarpine 투여군에서는 장액성세포내의 분비과립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atropine 투여군에서는 장액성세포내의 분비과립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2) 대조군에 있어 18Gy를 조사한 7일후 장액성세포내의 분비과립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2주후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atropine 투여로 분비과립이 증가된 상태에서 방사선조사를 한 결과 세포의 손상이 매우 심하여 조사 후 3일째부터도 장액성 세포내 분비과립의 감소가 나타났다. Pilocarpine을 투여하여 장액성세포내 분비과립이 소실된 상태에서 방사선조사를 한 경우는 장액성세포가 거의 정상소견을 보였으며 분비과립의 생성도 정상으로 회복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액성세포내의 분비과립이 양과 방사선에 의한 세포의 손상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세포내 분비과립의 양을 변화시킴에 의해 방사선에 의한 타액선의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 19 —

경부 복합 임파전이암 1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두경부외과학교실, 병리학교실*

이선희 · 진성민 · 최종욱
윤상애* · 원남희*

복합암은 내장기관의 원발병소에서는 보고된 바 있으나 두경부에서는 희귀한 질환이며 특히 복합 임파전이암은 아주 드물다.

최근 저자들은 53세 남자의 악이복근하 임파절(subdigastric node : 6×3×2cm)에서 단일 임파절내 성문하부 편평상피 세포암과 갑상선 유두상 선암이 복합전이된 예를 치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20 —

두경부 악성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의 세포성 면역 상태(제 1보)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서장수 · 박문흠 · 최재영 · 송계원

종양에 관여하는 면역기전은 세포성 면역반응이 관련되어 있으며, 항체반응에 관여하는 체액성 면역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세포성 면역반응에는 혈중 T-cell이 그 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종양의 발생시 일어나는 체내의 면역반응 이상은 T-cell의 숫적 감소, suppressor T-cell (T8 cell)의 활동성의 증가나 interleukin-2 receptor 및 interferon 생산의 감소, B-cell에 의한 Ig G 생산의 감소등이 그 원인인자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 체내의 세포성 면역상태를 파악하려는 시도로, T-cell이 활성화되면 세포표면에 발현이 증가되어 혈중으로 유리되는 가용성의 IL-2R와 T-cell에서 유리된 Interferon-gamma의 작용으로 macrophage에서 생합성되어 혈중으로 유리되는 Neopterin의 혈중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행해지고 있다.

이들 두물질은 자가면역질환, 바이러스성 질환, 장기 이식후 거부반응, AIDS, Leukemia, Lymphoma, Genito-urinary Tract Cancer등의 악성종양에서 그 혈중치가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이에 저자들은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 30례에서 IL-2R와 Neopterin의 혈중치 및 T-cell의 백분율, T4-T8 ratio를 측정함으로써 환자의 세포성면역상태를 규명하고자 했다.

그 결과, 전체 30례 환자의 혈중 IL-2R의 평균치는 631.8u/ml로 대조군의 373.9u/ml에 비해 증

가되어 있었고(<0.01), Neopterin치는 5.9nmol/L로 대조군의 5.9nmol/L과 차이가 없었으며, 환자의 T-cell 백분율은 77.7%로 대조군의 75.2%에 비해 증가되어 있었고(p<0.01), T4/T8 ratio는 1.7로 대조군의 1.2에 비해 역시 증가되어 있었다(p<0.01).

— 21 —

부갑상선 낭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윤석진 · 소의영 · 박정수

부갑상선 낭종은 드문 질환으로 대부분 전경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갑상선에서 발생한 종괴로 오진하기가 쉽다. 저자들은 부갑상선 낭종으로 판명된 7예의 환자를 수술 치험한 경험이 있어서 보고하는 바이다.

1) 연령 및 성별 분포는 6예는 여자, 1예는 남자였고 40대가 6예, 30대가 1예로 대부분 40대 여자이었다.

2) 수술전 진단은 2예에서 낭종을 세침 흡입 천자하여 부갑상선 홀몬을 측정하여 부갑상선 낭종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5예는 갑상선 낭종 의심하에 수술을 하였다.

3) 낭종의 위치는 5예에서 갑상선 하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2예는 상부 종격동에서 발견되었다.

4) 1예에서 부갑상선 선종과 1예에서는 Hashimoto's thyroiditis가 동반되었다.

5) 낭종의 크기는 직경이 3~10cm이었으며 내용물은 전부 맑은 액체였고 맑고 투명한 막에 싸여 있었다.

6) 수술은 타 질환이 동반된 2예와 갑상선 낭종과 구별이 힘들었던 2예에서 낭종을 포함한 한쪽 갑상선 엽을 절제하였으며, 3예에서는 낭종만 절제하였다.

이상의 소견으로 전경부의 낭종성 종괴는 갑상선 낭종이 대부분이나 드물게는 부갑상선 낭종으로 판명되는 수가 있다. 따라서 수술전에 진단을 위해 갑상선 부위에 낭종이 있으면 세침 흡입을